

# 미국 마두로 축출…세계 곳곳서 규탄 시위

스페인·인도·쿠바 등 대규모 집회…미국 주요도시서도 마두로 아들 “거리로 나와 달라”…지지자들에 시위 촉구 중남미 등 5개국 “국제법 위반…외부 간섭 안돼” 공동성명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과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이 3일 공습과 특수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제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중남미·아시아 등지에서 동시에 반발적으로 항의 집회가 열렸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에서는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했다.

마드리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베네수엘라 교민 애우해니아 콘트레拉斯는 “(미국의 공격은) 내 나라에 대한 범죄다. 우리 영토와 주권이 있는 국민에 대한 개입은 침략 행위”라고 말했다.

현지 주민인 카를로스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를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스페인은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작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도 스페인에 망명한 상태다.

중남미 다른 국가들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쿠바 아비나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미국의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하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마르타 엘레나 우에르타스는 “라틴 아메리카 여성으로서 우리는 범죄적이고 살인적이며, 식민주의적인 침공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좌파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베네수엘라 연대 집회를 열었으며, 브루기예 양카라와 이스탄불에서도 시위대가 ‘제국주의’를 규탄하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쳤다.

미국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주말 동안 시카고, 멜버른,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자”, “베네수엘라 폭격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진 군사행동은 합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계라는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에서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만,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역사는 누가 배신하였는지 알려줄 것”이라며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내부 배신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두로 계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이며, 현재 국회의원이다. 그는 아버지와 계모인 영부인 실리아 플로로스와 함께 미국 당국으로부터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외교적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일방적으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베네수엘라 문제는 “외부의 간섭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나 주요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 장악 시도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마약 테러 혐의와 관련해 한국시간 6 일 오전 2시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참치 한 마리 47억원…역대 최고가

5일 도쿄 고토구 도요스시장에서 신년 첫 참치 경매가 열리고 있다. 이날 경매에서는 아오모리현 오마산 참치가 역대 최고가인 5억1030만엔(약 47억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 이란 최고지도자, 시위격화에 ‘망명’ 계획 세웠다

### 더 타임스, 정보 보고서 인용

이란에서 오랜 경제난과 민생고에 지친 민심이 폭발해 반정부 시위가 확산 중인 가운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군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 대비해 망명 계획을 세웠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군과 보안 병력이 시위 진압에 실패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최대 20명의 죽근, 가족들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탈출해 국외로 도피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더 타임스는 해당 보고서의 출처 등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익명의 정보 소식통은 더 타임스에 “플랜 B는 하메네이와 그의 아들 모스타파를 포함한 극소수 죽근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이동을 돋기 위해 해외 자산과 부동산, 현금을 확보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 타임스는 서방국 정보기관이 수행한 심리 분석 결과를 입수했다면서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충성파를 보호하고 있어 이들의 이탈과 배신이 쉽게 일어나는 어려지만 작년 이스라엘과의 ‘12월 전쟁’ 이후 하메네이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후 망명해 수십년간 이스라



TV 연설 중인 아야톨라 하메네이.

엘 정보기관에서 일한 베니 샤크티는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피할 것”이라며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존경하며 이란의 문화는 러시아 문화와 더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 테헤란 등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화폐 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였지만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 절대적 금기로 통하는 정치 구호와 함께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격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메네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방송에서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면서 강경 진압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북한에 긴장감 고조…“북미 협상 가능성 높아질 것”

### 동아시아연구원 “북미 정상회담 연내 열릴 수도”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리카스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제포한 사건이 북한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불어 넣어 북미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원근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5일 EAI 주최의 ‘한국의 주변국 외교 및 대북 전략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리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다 주를 공습한 데 이어 마두로 대통령을 제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북한의 대외관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 소장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본다”며 “먼저 북한이 핵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디피처럼 핵무기 없는 반미 국가의 정상이 미국에 무너진 것을 근거로 오랫동안 해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북한의 인식이 이번 사건으로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게 박 소장의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작전이 북한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해안 봉쇄 수준이 아니라 직접(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체포까지 했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긴장감을 갖게 된다”며 “이런 일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벌일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떤 형태든 군사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북한

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내다봤다.

박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미북 간의 협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시점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시기는 올해 4월이나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이 후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회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국의 전략을 재검토해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외교정책 담론을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1개>

\* QR코드: 법원경매정보원 QR코드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물건	경매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소 재 치 및 면적 [m <sup>2</sup> ]	용 도	[단위: 원]	
2024타경 9424	1	영광군 영산면 봉남리 856-5 23616.7㎡ [공부 면적]	임야	34,017,100	맹지
2024타경 9547	1	당양군 수북면 주평리 348 251㎡ [인접지 346, 대지 247㎡]	대	104,061,000	지상식재수복포함
1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산16 198㎡ [김건원2/13지면전부]	임야	2,501,000	지분매각, 공유자우	
2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638-8 825.6㎡ [김건원 2/13지면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여부]	임야	8,001,000	지분매각, 공유자우	
3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산25-1 92132㎡ [김건원 2/13지면전부]	임야	63,783,450	선매수권1회제한	
4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34 684㎡ [김건원2/13지면전부]	대	12,038,400	일괄매각, 지분매각	
5	동구 35 403㎡ [김건원2/13지면전부]	대	12,038,400	선매수권1회제한	
6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산25-4 16760㎡ [김건원 2/13지면전부]	임야	11,602,800	지분매각, 공유자우	
7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87 1762㎡ [김건원2/13지면전부]	대	32,803,100	지분매각, 공유자우	
8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14 542㎡ [김건원2/13지면전부]	대	8,382,300	지분매각, 공유자우	
9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90-1 370㎡ [김건원2/13지면전부]	전	4,893,300	지분매각, 공유자우	
10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94-1 451㎡ [김건원2/13지면전부]	대	8,397,400	지분매각, 공유자우	
1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98-29 374㎡ [김건원 2/13지면전부]	대	14,432,500	지분매각, 공유자우	
12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0-5 1686㎡ [김건원 2/13지면전부]	대	32,536,000	일괄매각, 지분매각	
13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630-2 892㎡ [김건원 2/13지면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여부]	전	12,210,800	지분매각, 공유자우	
14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631 410㎡ [김건원 2/13지면전부]	전	7,698,200	지분매각, 공유자우	
15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114 185㎡ [김건원 2/13지면전부]	대	3,448,500	지분매각, 공유자우	
16	장성군 황룡면 낭산리 343-2 6446㎡ [김건원 2/13지면전부]	임야	7,932,800	지분매각, 공유자우	
17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311-1 20280㎡ [김건원 2/13지면전부]	임야	43,526,000	선매수권1회제한	
18	당양군 수북면 두정리 313-19 519㎡	임야	54,49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여부	
19	북구 자야동 804-10 3002㎡	대	2,368,57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여부	
20	동구 학동 593-2 60㎡ [고수정 2/13지면전부]	대	8,030,100	토지매각	
21	동구 학동 593-2 60㎡ [고수정 2/13지면전부]	대	8,030,100	선매수권1회제한	

###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물건	경매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tbl\_r cells="6" ix="1" maxcspan